

8/18/24

설교 제목: 유다 멸망을 목전에 두고 통곡하는 예레미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예레미야 9 장 1-26 절

- (렘 9: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 (렘 9: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 (렘 9: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 (렘 9: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절관주** 미 7:5
- (렘 9: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 (렘 9: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렘 9: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 (렘 9:8)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 (렘 9:9)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렘 9: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절관주** 렘 4:24, 렘 7:29
- (렘 9:11)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 (렘 9:12)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절관주** 렘 23:16
- (렘 9: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 (렘 9:14)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 (렘 9: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 (렘 9: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흠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 (렘 9: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 (렘 9: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 (렘 9:19)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 (렘 9:20) 부녀들이여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절관주** 사 32:9
- (렘 9: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절관주** 렘 15:7, 렘 18:21
- (렘 9: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 (렘 9: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 (렘 9: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절관주** 미 6:8, 미 7:18

(렘 9:2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를 받았어도

(렘 9: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여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도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렘 9:11)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렘 9: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렘 9: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렘 9: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아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파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렘 9: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렘 9: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예레미야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그는 차라리 어리석은 백성들을 떠나 광야에로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당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렘 9: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렘 9: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렘 9: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렘 9: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활을 당김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악으로 충만했습니다.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짓과 악이 충만하고 당신을 알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고 벌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하십니다.

(렘 9: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렘 9:8)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렘 9:9)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유다를 생각하며 통곡합니다.

(렘 9: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렘 9:11)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유다 성읍은 황폐하여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이같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같은 행동을 한 유다 백성들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열국 중에
흩으시고 칼로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렘 9:12)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렘 9: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렘 9:14)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렘 9: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렘 9: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주변 정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주변 정세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영하며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변 정세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유다는 당시 국내외적인 정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연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 시신들이 마치 추수한 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내팽개쳐져 장사조차 치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와 파멸하는 유다를 위해 애곡을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초상이 나면 품삯을 받고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부녀들을 불러 올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렘 9: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렘 9: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렘 9:19)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렘 9:20)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렘 9: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렘 9: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유다는 멸망과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몇 대까지 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청년들이 많이 죽어 그 시체들이 들에 즐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명철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렘 9: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렘 9:24)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는 일장춘몽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날이 이르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렘 9: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를 받았어도

(렘 9: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 받은 육체의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겼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7 월 26 일부터 8 월 11 일까지 파리에서 제 33 차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경악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센강에서 진행되었던 개막식에 드래그 퀸(Drag Queen 여장 남자 남자 동성애자) 트랜스 젠더 반나체 가수를 등장시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페러디하여 성경을 비하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바알 신에 경배하는 모습과 난잡한 성교를 묘사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는 유전학적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여성 경기에 참석해 금메달을 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와 크리스찬들은 이것들이 기독교를 모욕한 행위라고 이슈를 제기하며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파리 올림픽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파리 올림픽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두 침묵하다가 왜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양 새삼스럽게 야단들입니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과 돈을 우상으로 섬겨 왔으며 하나님의 법을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유다와 같이 처절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